

제 목	국 문	강화 암등록사업 10년 자료 예비분석	
	영 문	<i>Preliminary analysis of Kangwha cancer registry's 10 year data</i>	
저자 및 소속	국 문	김일순 ¹⁾ , 오희철 ¹⁾ , 김희옥 ²⁾ , 강형곤 ¹⁾ , 이 윤 ³⁾ , 김병수 ³⁾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¹ , 연세대학교 강화보건원 ² , 연세대학교 암센터 ³	
	영 문	Il Soon Kim ¹ , Heechoul Ohrr ¹ , Hee Ok Kim ² , Hyung Gon Kang ¹ , Yoon Lee ³ , Byoung Soo Kim ³ <i>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UMC, Institutes for Environmental Research, Yonsei University¹, Kangwha Community Health Teaching Center², Yonsei Cancer Center³</i>	
분야	역학	발표자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지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강화군에서의 남녀별 암의 발생률과 각 발생부위별 암의 종류에 따른 발생률, 증상-진단기간, 치료방법, 진단방법등에 관한 것을 알아보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분모는 행정자료의 성, 연령별 인구를 사용하였고, 환자발견 방법은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병원 암 진단 기록, 사망진단서 등으로 일단 대상자를 찾은 후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가정방문, 전화 등으로 추적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강화군 암등록사업은 지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본 사업의 분모가 되는 관찰인년은 10년간 남자 385,602인년, 여자 398,514인년으로 총 784,115인년이다. 이 기간중에 발생한 암은 남자 864건, 여자 549건으로 연령교정하니 않은 암발생률은 남자 10만명당 224.1, 여자 10만명당 137.8 이었다. 발생부위별 10만명당 발생률은 남자에서 위암 80.1, 폐암 37.1, 간암 27.7, 식도암 10.9 직장암 3.2, 췌장암 3.0 등이었으며, 여자에서는 위암 31.9, 자궁경부암 27.1, 폐암 10.8, 간암 9.0, 유방암 7.3등의 순이었다.

발생률이 배교적 높은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두기간 즉 1983-1987년과 1988-1992년사이에 진단 당시 연령은 1-3년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위암의 가장 흔한 형태학적 분포에서는 선암이 88.3%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간암에서는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76.5%, 폐암에서는 편평상피암 51.0%, 선암 22.6%이었으며, 자궁경부암에서는 편평상피암이 68.8%를 차지하였다. 그외에도 생존, 증상-진단기간, 치료방법, 진단방법등에관한 보고를 하고자한다.

4. 고찰